간호대학생의 코로나(COVID-19)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의 관계

김기용*, 김원중**, 이중근***, 이재겸*, 김중경*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 jj2c@nate.com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d, Resilience and Personality of Nursing Students

Ki-Yong Kim* Won-Jong Kim** Jung-keun Lee*** Jae-Kyeum Lee* Jung-Kyoung Kim*

*Dep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Dept.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Dept. of Nursing, Yeos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G도에 위치한 4년제 1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04월 29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평균 2.23점, 회복탄력성은 평균 4.10점, 인성은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회복탄력성, 인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은 인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과 인성으로 나타났으며 64.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과 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과와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는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20년 12월 발생되었다[1].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를 감염병 대유행,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2],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첫 국내 감염자 확인 이후 5차례 대유행이 발생하였다[3].

장기화된 COVID-19 인해 확진자, 가족을 상실한 가족, 그리고 감염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4].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우울감과 우울증을 포괄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5],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이 유발, 이와 같은 심리적 증상이 쌓여 분노로 확산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인 '코로나 레드'가 등장하였다[6, 7].

간호학과 교육특성상 임상실습은 교내에서 학습한 간호학적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 응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8],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상실습이 제한

되고, 갑작스런 실습형태의 변화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불안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9-11]. 이와 같은 심리반응은 다양한 영향요인에 따라 개인마다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회복탄력성과 인성이 개인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12].

회복탄력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어려움에 대응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며, 개인의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힘이다[13].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도 적절하게 대처하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되고[14],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학업환경과 임상실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15,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성은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라고 정의되며[17],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격을 의미한다[18].

또한 개인의 인성에 따라 스트레스, 분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9]. 또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인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다[13]. 또한 미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인성의 함양은 대상자 중심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역량이다[20].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21], 간호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회복탄력성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22].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지실패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23].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이 느끼는 장기화된 COVID-19 상황에서 코로나 Red,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인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COVID-19)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04월 04일에서 04월 29일까지 G도와 위치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로 서면동의를 실시하였다. 총 109명의 응답자가 설문문을 작성하였고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 Red

본 연구에서 코로나 Red는 Spielberger[24]가 제작한 도구를 Hahn[25]가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분노척도(STAXI-K)중 특성분노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 19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scale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분노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인 Yoo[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4$ 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미국의 Connor와 Davidson[27]이 개발한 도구를 Back 등[28]이 번안한 한국형 회복탄력성(K-CD-RISC)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0.89$, Back 등[3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3$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3$ 이었다.

2.3.3 인성

인성은 Park & Hur[2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3문항으로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0.93$ 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96$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인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인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인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코로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Red는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전공만족은 매우 만족보다 만족과 보통인 그룹에서 코로나 Red가 높았다($F=5.26, p=0.007$). 학교생활만족은 매우 만족보다 만족, 보통, 불만족인 그룹이 코로나 Red가 높았다($F=4.99, p=0.003$).

회복탄력성과 인성은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전공만족은 매우 만족인 그룹이 만족과 보통인 그룹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았고($F=7.88, p=0.001$), 학교생활만족은 매우 만족인 그룹이 만족, 보통, 불만족인 그룹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았다($F=8.35, p=0.000$). 인성

의 사후 검정결과 전공만족은 매우 만족인 그룹이 만족과 보통인 그룹보다 인성이 높았고($F=9.90, p=.000$), 학교생활만족은 매우 만족인 그룹이 만족, 보통, 불만족인 그룹보다 인성이 높았다($F=9.59, p=.000$).

3.2 대상자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의 정도와 관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4점 만점에 평균 1.23점이었고,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10점이었으며,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회복탄력성($r=-.539, p<.000$), 인성($r=-.799, p<.000$)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인성($r=.767, p=.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Red는 인성과 상관관계 수가 가장 높았다(Table 2).

Table 1. Nursing students' COVID-19 Red, Relatedness and character

	Mean±SD	Range
COVID-19 Red	1.23±1.18	0~4
Relatedness	4.10±0.52	1~5
Character	3.84±0.62	1~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OVID-19 Red, Relatedness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COVID-19 Red	Relatedness	Character
COVID-19 Red	1		
Relatedness	-.539 (.000)	1	
Character	-.799 (.000)	.767 (.000)	1

3.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회복탄력성, 인성, 전공만족 및 학교생활만족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809로 나타났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복탄력성($\beta=.189, p=.041$), 인성($\beta=-.936, p=.000$)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대한 설명력은 64.1%였다(Table 3).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 회복탄력성 및 인성

Table 3. Factors affecting COVID-19 Red

Spec.	B	SE	β	t	p
Constant	10.251	.821		12.484	.000
Relatedness	.361	.175	.189	2.068	.041
Character	-2.130	.209	-.936	-10.194	.000
Major Satisfaction	-.102	.126	-.058	-.808	.421
College satisfaction	-.122	.124	-.073	-.979	.330
Durbin- Watson	.809				
F(p)	49.30(.000)				
R ²	.655				
Adjusted R ²	.641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평균 2.23점, 회복탄력성은 평균 4.10점, 인성은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는 회복탄력성, 인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은 인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과 인성으로 나타났다. 64.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Red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과 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과와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M. Kim S. Kweon, J. H. Lee, S. Baek, B. H. Jeon, H. Yoo, "Weekly report on the COVID-19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March 28, 2020)". Public Health Wkly Rep. 2020;13:800-6.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 11 march 2020."
- [3] KCDA(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Status of COVID-19 outbreak and vaccination in Korea 2022."
- [4] Lee EH. "COVID-19 generation, how is your mental health!.",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20.
- [5] H. I. Son K. W. Kim, J. B. Hur, C. H. Park. "Busan Metropolitan City's Policy Response to Overcoming COVID-19.", BDI Policy Focus. 2020:1-12.
- [6] Dictionary of Current Affaires, "Corona red"
- [7] S. K. Kang J. K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Over-Dependency and Anger in Youth : Moderating Effect on Negative Emotion of COVID-19.",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 2021;16(4):235-40.
- [8] Fukada M. "Nursing competency: Defini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Yonago Acta Medica*. 2018;61(1):001-7.
- [9] D. Ulenaers, J. Grosemans, W. Schrooten, J. Bergs. "Clinical placement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021;99:104746.
- [10] S. H. Chon S. H. Lee, E. J. Bae, J. S. Kim. "The College Students' Depressive Symptoms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A Web-based Cross-Sectional Survey.", *Nursing Health Issues*. 2021;26(1):10-7.
- [11] D. H. S. Kang K. J. Yang.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21;33(5):509-21.
- [12] M. J. Shin Y. E. Chu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very Elasticity and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nd Clinical Practice-Related Self-Effectiv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281-304.
- [13]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H. Y.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3):337-46.
- [14] I. H. Chun J. Y.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2016;6(1):49-60.
- [15] E. H Jo. "Mediating Effects of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and Anxiety with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0):677-88.
- [16] J. A. Kim. "The effects of 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and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016;25(1):161-83.
- [17]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 [18] K. W. Son S. H. Um.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haracter index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019;52:199-252.
- [19] H. J. Jang. "Effects of Personality Type, Academic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s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0;37(4):969-85.
- [20] M. H. Ju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9):302-14.
- [21] M. H. Nam H.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24(4):298-306.
- [22] S. Y. Kim. "The Influence of Self - Control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1):253-62.
- [23] H. H. Park. "The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Resilience on Cognitive Failur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4):323-33.
- [24] Spielberger, C. D. , Johnson, E. H. , Russel, S. F. , Crane, R. J. ,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 structio nandvalidation of ananger expressions cale. In Chesney M. A, & Rosen man R.(Eds.),*Anger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 ald disorders(pp5-30)*. Washington, DC:Hemisphere.
- [25] D. W. Hahn, K. K. Chon, J. H. Le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Anger and Blood Pressu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97;2(1):120-127.
- [26] M. J. Yoo, "The in fluence of trait anger expressions caused by job stress of clinical nurse s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konkuk university, Seoul , 2011.
- [27] H. S. Bac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Master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2010.
- [28] J. M. Ko,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hournal lof stress research, 2017;25(2):120-127.
- [29] S. M. Park, S. H Hur,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2;1(21): 35-47.